



♡ 의문사 + to 부정사

1. 「의문사+to-부정사」는 ask, be at a loss, tell, show, teach, explain, understand, learn, know, 등의 동사와 자주 사용된다.

2. 의문사 why는 부정사와 함께 쓰이지 않는다.

1. ① I don't know what to read to improve my English.
 - ② How to live is an important question to us all.
 - ③ I was quite at a loss what to do.
 - ④ I don't know whom to go with.
 - ⑤ Very few people know where to look for happiness.
 - ⑥ To know how to use knowledge is to have wisdom.
 - ⑦ He did not know whether to go or turn back.
 - ⑧ We were at a loss whom to elect as chairman.
2. ① I didn't know what kind of present to send her.
 - ② Do you know which way to take?
 - ③ I learned what expressions to use in public.
 - ④ I don't know which advice to follow.



[1997년 수능 35번]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Don't be surprised if you start hearing the term "information literacy" a lot. The digital revolution means that sooner or later students and adults are going to need an entirely new set of skills: how to get information, where to find it, and how to use it. Becoming good at handling information is going to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skills of the twenty-first century, not just in school but in the real world. Thus you are going to have to master these skills eventually anyway. So deal with them now.

- ① 컴퓨터 혁명으로 문맹을 퇴치할 수 있다.
- ② 컴퓨터의 성능과 정보 처리속도는 비례한다.
- ③ 정보를 능숙하게 처리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 ④ 미래엔 컴퓨터가 학교를 대체할 것이다.
- ⑤ 21세기엔 컴퓨터가 인간을 지배할 지도 모른다.

정답 : ③

당신이 “정보처리 능력”이라는 용어를 자주 듣기 시작한다고 해도 놀라지 마라. 디지털 혁명이란 조만간 학생들과 성인들이 완전히 새로운 일련의 기술, 즉 정보 습득 방법, 정보 발견 장소, 그리고 정보 사용법 등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정보처리에 능숙해지는 것은 단지 학교에서만 아니라 실제 사회에서도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기술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따라서 당신은 결국 어떻게 해서든 이 기술을 숙달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그 기술들을 다루어 보라.

term [tɜːrm] n. 말, 용어; 기간, 학기; pl. 관계; pl. 조건

literacy [lɪtərəsi] n.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박식함

sooner or later 조만간

deal with 다루다, 취급하다(=treat)